어린이 책꽂이

▲내가 최고야=귀여운 생쥐 캐릭터 '메이지'로 국내에 알려진 그림책 작가 루시 커신즈의 신작. 입장을 바꾸면 누구나 잘하는 것을 한가지씩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못 하는 것이 있다는 겸손함을 길러준다.
〈시공주니어·9000원〉

▲참새=정호승 시인이 펴낸 첫 번째 동시집. 자연과 가족, 동물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시인 특유의 맑고 서정적인 언어로 담아냈다. '나무' '고추잠자리' '할머니 젖' '무릎 잠' 등 66편의 동시를 통해 아이들의 천진한 눈에 비친 세상을 소박하고 진솔하게 노래한다.
〈처음주니어·9500원〉

▲원숭이랑 나랑=영국 동화작가 에밀리 그래빗의 신작으로 어린 아이의 무한한 상상력을 익살맞으면서도 세련되게 그려냈다. 가장 아끼는 친구인 원숭이 인형과 늘 같이하는 주인공 '나'는 원숭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두 친구는 북극에 사는 펭귄,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캥거루까지 모두 만난다. 〈어린이작가정신·9500원〉

▲눈물이 방울방울 아름다운 꽃 이야기=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섯 종류의 꽃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집간 손녀들을 찾아 나섰다가 문전박대당하고 객사한 할머니의 슬픈 사연을 담은 할미꽃 이야기에서부터 며느리의 억울한 사연을 품은 꽃며느리밥풀 이야기까지 그 사연들이 슬프고 애달프다. 〈미래아이·1만2000원〉

▲귀신 백과사전=고전을 통해 내려오는 각양각색의 우리 귀신 이야기. 신비한 저승 세계의 모습부터 이승을 떠도는 천차만별 귀신과 우리를 지켜주는 멋진 신(神)들까지 재치있는 글과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우리 조상이 상상한 또 하나의 세상을 흥미진진하게 펼쳐보인다.
〈푸른숲주니어·9800원〉

▲호랑이가 예끼 놈!=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을 밀착해서 고발하는 18세기의 박지원의 고전소설 '호질'을 작가 이은홍이 현대적인 시각으로 쓰고 그렸다. 영물인 호랑이가 겉모습만 번지르한 가짜 북곽 선생의 모습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줄거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썼다. 〈사계절·1만500원〉

▲평화를 부탁해-평화를 위한 세계의 기도=이스라엘 8살짜리 아이의 기도부터 중국 사상가 노자,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198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녹색 운동의 성자로 불리는 인도 자이나교 승려 사티시 쿠마르까지 평화에 대한 인류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한다. 〈노란상상·9500원〉

▲뚱뚱해서 싫어?=주인공 '광무'의 비만은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엄마의 무관심과 빈자리가 광무를 더욱 살 찌게 만들었다. 엄마의 빈자리를 입 큰 괴물에 빗대어 배를 채워야만 괴물의 입을 다물 수 있다고 표현했다. 교훈적인 내용을 딱딱한 훈계조가 아닌 재미난 동화 속에 담아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스콜라·8500원〉

그리스 도공과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공통점은?

장인

리처드 세넷 지음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시작하더니,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고 있었다…."

지나친 정성 때문에 차를 놓쳤지만 평생을 쓸 수 있는 방망이를 얻었다는 윤오영의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의 한 대목이다.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이제는 자기의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장인들의 손길을 찾아 보기 힘들어졌다.

노동 및 도시화 연구의 권위자인 리처드 세넷 영국 런던정경대 사회학과 교수의 신간 '장인'은 인류 역사를 지켜온 수많은 '방망이 깎던 노인'을 통해 장인 정신을 일깨워준다.

그는 첫 머리에서 "고대 그리스의 도공들과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장인의식'(craftsmanship)이라고 답했다.

장인의식은 면면히 이어지는 인간의 기본적 충동이자 일 자체를 위해 일을 잘 해내려는 욕구라고 새롭게 정의한다.

장인을 찬양하는 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대장간의 신(神) 헤파이스토스를 노래한 '호메로스 찬가'다.

"솜씨가 빼어난 헤파이스토스. 총명한 아테나와 함께 찬란한 실기를 온 세상에 가르쳤나니. 산속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솜씨 좋은 헤파이스토스에게서 갖가지 실기를 배워 이제는 자기 집에서 일년 내내 평화롭게 살도다."

저자는 품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장인으로 규정한다. 단지 육체적인 기능으로만 설명하려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며, 이런 점에서 고대 그리스 도공과 리눅스 프로그래머는 모두 장인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손과 머리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한다. 손과 머리는 하나이며, 행동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장인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한다.

'호메로스 찬가' 역시 손과 머리를 함께 쓰며 일했던 사람들을 장인으로 칭송했다. 따라서 시인(詩人)도 장인이었다.

이 밖에 고대 그리스 도공에서부터 로마제국의 이름없는 벽돌공, 중세시대 거대한 성당을 지어 올렸던 석공,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근대의 노동자, 건축가,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현대 전문직종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살았던 장인의 모습을 살펴본다.

그는 이들의 삶을 통해 '묵묵히 일하는 부지런함'을 장인의 덕목으로 꼽았다.

한편 저자는 뉴욕 대학교와 영국 런던 정경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노동 및 도시화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2006년 헤겔상, 2008년 게르다 헨켈상, 2010년 스피노자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이다. 〈21세기북스·2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책에서 저자는 '장인의식'은 면면히 이어지는 인간의 기본적 충동이자 일 자체를 위해 일을 잘 해내려는 욕구라고 새롭게 정의한다. 사진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玉匠) 장주원씨. 〈광주일보 자료사진〉

'원폭 아버지' 오펜하이머 일생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카이 버드·마틴 셔윈 지음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1904~1967년). 무시무시한 별명과 달리 생전에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피'(Oppie)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던 자상한 인물이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고뇌, 오욕의 삶을 살았던 천재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일생과 인간적 면모를 꼼꼼히 되살려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출간됐다.

언론인 카이 버드와 미국 터프츠대학의 교수 마틴 셔윈이 25년간 100명에 달하는 오펜하이머의 친구와 친척, 동료와의 인터뷰, 미 FBI(연방수사국) 문서 열람 등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썼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로스앨러모스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폭탄의 설계와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미국에 힘을 실어줬지만 끝내 FBI의 보안위험 인물로 생을 마친 그의 아이러니한 삶이 방대한 자료와 함께 낱낱이 공개된다.

오펜하이머의 비극은 핵무기 철폐를 한결같이 주창한 데 있다. 저자들은 그를 인간에게 불을 전달한 신(神) '프로메테우스'에 비유하며 원자력의 잠재적 이로움과 위험성에 대한 그의 행동은 현명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을 효율적인 팀으로 만든 과학행정가로서의 모습도 새롭게 조명했다. 〈사이언스북스·4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멘트 공장서 의문의 집단자살

A

하성란 지음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한 중견작가 하성란(43)씨가 9년 만에 장편소설 'A'를 출간했다. 2008년 계간 '자음과모음' 가을호부터 연재했던 것을 엮은 것으로 1987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대양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A'라는 제목은 여성들의 비밀 공동체와 그들이 꿈을 이뤄줄 만한 남자들에게 주홍글자 'A'를 새겨 보낸 편지에서 따왔다.

신신양회라는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어난 의문의 집단자살을 다룬다. 공장 기숙사에서 한 날 한 시에, 자의에 의한 타살로 죽은 사람은 24명.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죽었다. 사건은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의문과 추측만을 남기고 마무리된다. 그 자살 현장에는 유일한 생존자, 후천성 맹인인 '나'가 있었다. 그리고 3년 후 '나'를 비롯해 집단사망한 여성들의 자녀가 다시 모이면서 섬뜩한 진실이 조금씩 밝혀진다.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 부담감에도 하성란 작가 특유의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그 주제 또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만하다. 그것은 물질적 풍요를 향해 끝없이 질주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야기이며,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한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탐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자음과모음·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카리브해 스페인 보물선 습격

해적의 시대

마이클 크라이튼 지음

'쥬라기 공원'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의 유작 소설 '해적의 시대'가 나왔다. 이 소설은 2008년 66세로 타계한 작가의 컴퓨터 파일에서 발견돼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출간된 작품으로, 스페인이 패권을 차지한 17세기 카리브 해를 무대로 한다.

소설은 특공대를 조직해 금을 가득 실은 스페인 배가 정박한 마탄세로스섬 공격에 나선 영국 해적들의 모험을 그린 서스펜스 대작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악명 높은 도시였던 포트 로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스페인 보물섬을 습격하는 해적 특공대가 겪는 모험이 마지막 장까지 쉴 새 없이 펼쳐진다.

매력적인 영국 해적선장인 주인공 찰스 헌터를 비롯해 쥐의 창자로 도화선을 만드는 화약 전문가 돈 디에고, 이발사이자 외과의사인 자메이카 최고의 항해사 엔더스, 혀가 잘려서 말을 못하지만 맨손으로 무엇이든지 해내는 무어, 그리고 카리브 해에서 가장 무자비한 킬러로 명성이 자자한 상송 등 생동감 있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미국에서 초판 100만 부를 찍은 베스트셀러인 이 소설은 이미 전 세계 24개국 판권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화를 결정했다. 〈김영사·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